

기생충교실

간디스토마

생활사(감염경로)

간디스토마의 감염율은 우리나라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약 15%로 추산되고 있으며 낙동강·금강·섬진강·한강 등이 알려져 있고 이같은 큰 강 외에 개울·저수지·연못·늪·웅덩이에 사는 담수어에도 거의 감염되어 있다. 이러한 곳의 사람들은 80% 이상이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어 있는 부락도 있다. 간디스토마는 간에 기생하는 길이 1~2cm, 폭 0.3~0.5cm 정도의 흡충이다. 감염경로는 변과 같이 나온 충난이 여러 경로를 밟아 담수에 이른다. 민물에서 제 1중간숙주인 왜우렁이에 먹혀 애기벌레가 떠나오고 계속 발육하여 「셀카리아」(유미유충)가 된다. 셀카리아는 물속에 나와 자유롭게 헤엄치다가 제 2중간숙주인 민물고기와 접촉하면 비늘 밑에 피하조직이나 근육 내에서 피낭유충(메타셀카리아)으로 된다. 피낭유충이 들어 있는 민물고기를 중숙주인 사람 또는 동물이 날로 먹을 때 간 속으로 들어가 발육기 생활한다. 주로 간의 담관내에서 약 1개월 후 성충이 되며 알은 대변에 섞여 밖으로 나온다. 수명은 약 10년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증 세

초기에는 검변에서 충란이 발견 될 뿐 아무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일이 많다.

발병은 서서히 완만하며 만성적이다.

소화불량, 간부의 둔통, 복부팽창, 간비대, 식욕부진, 설사, 야맹, 황달 증 등이 나타난다. 중증에서는 이상이 더욱 심해지며 간의 기능이 나빠지며 문맥순환 장애로 인하여 뱃속에 물이 고이고 생명을 잃는 예도 많다.

감염방지(예방)

피낭유충을 가진 담수어의 생식으로 감염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참붕어, 피래미, 긴물개, 모래무지 등 40여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참붕어·물개 등에는 보통 50여개, 많은 것은 약 300개의 유충을 가지고 있다. 살 속에 있는 피낭유충은 식초에 4일간 두어도 또 간장에 3일간 담그거나 포화염수 속에 넣어서 2일간 두어도 죽지 않는다. 얼음 속에 8일간 두어도 죽지 않으나 55도의 더운물에서는 15분만에 멸살한다. 따라서 위험성이 있는 민물고기는 열로 처리하는 것이 상책이다. 조리할 때의 그릇, 칼, 도마, 손등에 묻었던 것이 감염되는 수도 있고 피낭유충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때도 감염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담수어를 생으로 먹지 않는 것이 간디스토마의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다.